

기초연금 … “불가피한 조정” VS “공약사기”

채동욱 사퇴 … “도덕성 문제” VS “찍어내기”

## 여야 국회서 ‘난타전’

###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정부 설명에 대

해서는 “2028년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가 10만 ~ 2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불 한 잔

이 반 잔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을 포함한 대선 공약을 설계했던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초연금안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주장해 온 제도로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기초연금 방식을 주장해왔다”며 공약기준에 반론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답변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채동욱 사퇴 논란=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자이며 수행에 치명적 흡결이 생긴 만큼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채 전 총장이 국가 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불만을 품은 “보복성 찍어내기”라고 맞았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은 협회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

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면서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국민은 그 직을 수행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정치권은 이번 논란의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 했다”면서 “아제 채 전 총장은 스스로 정정보도 소송까지 취하했는데 진실 규명에 매진하겠다는 당초의 의지 표명과는 괴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전 총장을 감찰한 것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면서 “사실상의 감찰은 언론 보도 후에 이뤄졌지만, 그전부터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여권이 개인적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청와대가 찍어내기를 하려는 게 있다”면서 “법무부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증폭시켰는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과 사퇴시키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의혹이 생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이런 측면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면서, 책임질 관계 공약도 같이 파기했다”며 “약속 파기 즉각 종단하고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인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100% 주겠다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미래세대를 역차별하는 것 ▲ 지난 2007년의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 광주 U대회 경기장 점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표단이 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육상 훈련장 건설부지를 찾아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7월 카잔 대회에서 차기 개최 도시인 광주로 대회를 인수해온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점검은 3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곽상도 ‘채동욱 날리겠다’ 언급”

### 신경민 민주당 의원 ‘靑·조선일보 커넥션’ 주장



했다”면서 “그러나 서 청장은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그래서 (과 전 수석은) 검찰 정보라인을 통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과 전 수석은 검찰 출신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찰자료를 요청

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에게 “줄 빠대로 서라. 국가기록원(NIL 실종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에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후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채동우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모두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변 했다./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복지부 자활센터 주민 정치사찰’ 진상조사

#### “명백한 범법 행위”

#### 정치 쟁점화 시도

민주당은 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자활센터 직원과 주민의 정당활동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시·도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질社会发展

를 시도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24시간 비상 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최근 9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에 ‘지역자활센터 점검지도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공문에는 이전에는 없던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활동 실태’”

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내용을 보면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 대표 선거유세 등의 항목을 들었다. 전에 없던 항목”이라며 “이것은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이나 민감한 시기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항목이 생긴데다가, 그 항목의 내용이 직원 및 참여주민의 정당활동 실태”라며 “모바일 참여는 민주당이 해온 방식이고 정면으로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사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장은 윤호중 의원, 간사에 김성주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을 인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등 일련의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참으로 ‘이명박근혜’ 습니다는 개인이 나를 지정”이라며 비판했다.



공약도 빙! 발차기도 빙!

/복지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출발◆장가계직항 전세기◆** 10월 8일~11월 15일  
매주화, 금출발

실속 무안/장가계/천문산 4일	<b>959,000~</b>
풀격 무안/장가계/천문산 4일	<b>1,059,000~</b>
실속 무안/장가계/천문산 5일	<b>1,019,000~</b>
풀격 무안/장가계/천문산 5일	<b>1,109,000~</b>

※불포함 사항 : 유류합중료(92,200), 기사&기어드림(408), 비지비23,000원  
※특전: 청양정식사(그레이드), 청심맛사지, 황봉동굴, 천문산+귀곡간도, 준특급 이상호텔  
인정증 1회 티어블당 전통호숙주 1명제공

**일본 규슈 온천 여행**

장착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b>299,000~</b>	장착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빌리지 숙박 일본 규슈 3박4일 <b>499,000~</b>	내맘대로 자유투어 <b>199,000~</b>
--	--	------------------------------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 별장으로 GO, GO!!

※ 불포함 사항 : TAX, 유류합중료, 기사카이드립, 국내수송비  
※ 토크호텔 2박인 경우 1인당 100,000원추가  
최소출발 8명부터 가능

**무안-베트남 캄보디아 전세기**  
겨울방학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절경과 친란한 역사와의 만남!!

**베트남, 캄보디아 4박6일**  
**1,299,000**

※ 불포함 : 개인경비, 유류합중료, 기사&기어드림 팀

**무안 - 북경 기획 특가!!** (매주화, 금요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b>399,000~</b>	무안-상해/항주/소주 4일 <b>449,000~</b>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b>469,000~</b>	무안-상해/황주 4일 <b>539,000~</b>
무안-북경/태향산 4일 <b>799,000~</b>	무안-상해/서안 4일 <b>739,000~</b>
무안-북경 / 태향산 5일 <b>849,000~</b>	무안-상해/정주 4일 <b>839,000~</b>

※ 불포함 사항 : 유류세(W137,200), 단체비자(W23,000), 기사/기어드림(850/인)

**무안에서 동방항공으로 떠나는 중국여행!!**

무안-상해/항주/소주 4일 <b>449,000~</b>	무안-상해/황주/황산 4일 <b>539,000~</b>
무안-상해/서안 4일 <b>739,000~</b>	무안-상해/정주 4일 <b>759,000~</b>
무안-상해/계림 4일 <b>799,000~</b>	무안-상해/계림/주자각 5일 <b>919,000~</b>
무안-상해/곤명 5일 <b>1,049,000~</b>	무안-상해/귀양 5일 <b>1,049,000~</b>

※ 불포함 사항 : 유류세(W99,000), 단체비자(W25,000), 기사/기어드림(810/1박)

**미동부 아이비리그 9일** **3,790,000~**

※ 특전 : 자국기이동(ke/oz), 유명대학의 직접강의, 현지학생에게 듣는 IVY LEAGUE  
미국 주요도시 TOUR, 전문인습자동행

※ 불포함 : 항공TAX, 유류합중료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 불포함 : 목포항 도착 서둘버스포함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불포함 : 항공TAX, 유류합중료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48,000~**

※ 항공사항 : AIJ포함 정급합숙기준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시행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13-1호

• 공동조관 여행 경비 : 인기종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박일 국내상품 5천원(일) 광광진출개방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합중료 포함

• 2박1일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통제 기업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편 : 항공, 선박, 전용버스, 전기차, 택시, 헬기, 열차 등

• 상기 오류는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비없음 (단, 기사/기어드림 봉사료, 선박관광, 국적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